

# State of Play 2025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적용 현황 보고서

2025년 4월 20일 기준  
발행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 Disclaimer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및 이 보고서의 기여자들은 본 문서의 내용 또는 이를 따르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또는 부수적인 결과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들은 2023년 7월 31일자 회계 지침(the Accounting Directive)을 보완하는 위임 규정 (EU) 2023/2772 및 2024년 5월에 발표된 이행지침(Implementation Guidance) 1, 2, 3을 준수하고, 그 적용에 자체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 보고서는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에 따라 “2025년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들(Wave 1)”의 초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SM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이며, ERS의 공식 이행 지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계 지침(Directive 2013/34/EU)의 제19a조 및 제29a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4월 20일 현재 발행된 기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ERS 초기 이행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EFRAG에서 “현황 보고서(state of play report)”로 발행된 것으로, 그 특성상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표는 GenAI를 활용해 분석한 11개 질문의 결과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체 표는 보고서 본문과 함께 EFRAG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원문 언어는 영어이며, 번역은 삼일PwC의 단독 책임입니다.
- 본 번역본은 EFRAG의 승인을 받아 제공된 것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번역본의 내용은 삼일PwC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보고서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조치나 결정을 위한 법적 조언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EFRAG 소개



EFRAG은 재무 및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에서 유럽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보고에 대한 유럽의 관점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EFRAG은 기업 보고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활동에서 ERS 초안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ERS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합니다.

EFRAG은 기준 제정 과정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럽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정당성은 타월함, 투명성, 거버넌스, 절차 준수, 공적 책임, 그리고 사례 깊은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FRAG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 보고 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 보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FRAG은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me)”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EEA-EFTA 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코소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서에 표현된 의견 및 견해는 전적으로 작성자의 것이며,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단일시장 프로그램 참여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단일시장 프로그램 참여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목차

<b>1 요약   주요 관찰 내용</b>	<b>04</b>
1-1. 배경	04
1-2. 관찰결과	04
<b>2 서론</b>	<b>07</b>
<b>3 분석 범위</b>	<b>07</b>
<b>4 Cross-cutting standards</b>	<b>09</b>
4-1. 보고서 구조 및 길이	09
4-2. 중요성 평가	10
4-3. 이중 중요성 평가(DMA)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13
4-4. 정책, 실행 및 목표(PATs) 보고	15
4-5. 영향·위험·기회(IROs) 및 가치사슬(Value Chain) 매핑	16
<b>5 Topical standards   환경</b>	<b>17</b>
5-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CTP)	17
5-2. 내부 탄소 가격제(ICP) 및 생물다양성 지표	19
5-3.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적 영향	23
<b>6 Topical standards   사회</b>	<b>24</b>
6-1. EEA(유럽경제지역) 내 적정 임금	24
6-2.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25
6-3. 자사 근로자	25
6-4.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27
6-5. ESRS S3 영향받는 지역사회	28
6-6.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29
<b>7 Appendix</b>	<b>30</b>
7-1. 한계 및 유의사항	30
7-2. 분석 방법론	30
7-3. 용어 및 정의	31



## 1 요약 | 주요 관찰 내용

### 1-1. 배경

이 보고서는 2024 회계연도에 대해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발행된 문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인사이트는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되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Appendi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관찰결과

#### Cross-cutting standards

##### 보고서 구조 및 길이

- 보고서 분량과 형식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평균 길이는 115페이지, 중앙값은 100페이지이며, 가장 긴 보고서는 약 440페이지, 가장 짧은 보고서는 약 25페이지입니다. 전체 보고서 중 약 25%만이 70페이지 미만이며, 작성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일부 보고서는 서술형으로 길게 작성된 반면, 다른 보고서들은 더 짧고 도식적이었습니다.
- 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유사: 모든 보고서는 ESRS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 Topical standards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챕터 제목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보고서 간 비교가능성 향상: 대부분의 기업이 ESRS 적용요구사항 16(AR16)에 제시된 Topical standards, 세부 주제(Sub-topic), 세부 하위 주제(Sub-sub topic) 목록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고서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데이터포인트 수준의 공시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남: 기업들은 세부 항목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했으며, 공시 형식(예: 표 사용, 데이터포인트의 명확한 라벨링)과 내용(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은 크게 달랐습니다.

##### 중요한 Topical standards

- 기업들은 자사 맥락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Topical standards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함.
  - ▶ 전체 보고서 중 약 10%만이 10개 모든 Topical standards를 중요하다고 식별했습니다.
  - ▶ 약 25%는 4개 이하의 Topical standards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다음의 6개 기준서는 전체 작성 보고서의 60% 이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후변화(E1): 98%, 자사 근로자(S1): 99%, 기업 윤리(G1): 9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 68%, 순환 경제(E5): 65%,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63%
- 모든 Topical standards가 일정 수준 이상의 중요성을 지님: 모든 Topical standards가 적어도 30% 이상의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90%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세 개의 Topical standards를 중요하다고 판단함: 기후변화(E1), 자사 근로자(S1), 기업 윤리(G1)
- 5% 미만의 기업만이 6개의 세부 주제(Sub-topic)를 중요하다고 판단함: “생물과 식량 자원의 오염(E2)”, “미세플라스틱(E2)”, “지역사회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S3)”, “원주민의 권리(S3)”, “생물다양성-동물 복지(E4)”, “원주민의 권리(S4)”

▶▶ Cross cutting standards section continues on the next page

### 이중중요성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 주로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에 집중: 작성자의 97%가 내부 이해관계자(주로 직원)와 협의하였으며, 약 70%는 고객과, 약 65%는 공급업체와, 약 60%는 투자자와 협의했습니다.
-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작성자는 NGOs (33%), 지역사회(30%), 산업 단체(약 20%), 학계(약 15%), 노동 조합(약 10%)과 협의하였습니다.

### 영향·기회·위험(IRO) 평가와 가치사슬

- 산업별 IRO 평가 방식 상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가치사슬의 다양한 단계에서, 영향(Impact), 위험(Risk), 기회(Opportunity)를 식별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예: 피투자 기업)에 집중한 반면, 비금융 기업은 자사 영업 및 업스트림 단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 기업 특유 공시 항목<sup>1</sup>

- 기업 특유 공시 항목(주로 데이터포인트)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많은 작성기업들이 자사 고유의 상황에 특화되어 있고 ESRS 적용요구사항 16(AR16)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한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했으나, 약 30%만이 이를 '기업 특유 공시'로 명시적으로 구분 표시했습니다.<sup>2</sup>

1. "기업 특유(entity-specific)" 데이터포인트란, ESRS 데이터포인트 표준 목록(ESRS 이행지침 IG3에서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서 작성자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활동 또는 영향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한 공시 항목을 의미합니다.  
2.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 EFrag 사무국(EFRAG Secretariat)이 선정한 특정 Topical standards

**환경**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CTP)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CTP)은 공시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음: 조사 기업의 55%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CTP)을 수립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행지침 IG4 초안<sup>3</sup>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명확하게 공시한 사례는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 간 공시 내용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sup>4</sup>
- 대부분의 기업이 1.5°C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스코프 3 배출까지 포함한 사례는 절반 이하: 약 70%의 기업이 스코프 1 및 2 배출에 대해 1.5°C<sup>5</sup> 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스코프 3 배출까지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40%에 불과합니다.<sup>4</sup>
- 대부분의 기후 목표는 SBTi 인증을 받음: 기업의 60%가 자사의 기후 목표가 “SBTi(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에 따라 검증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sup>4</sup>

**환경** 탄소가격 책정 & 생물다양성

- 탄소 가격 책정 도입은 낮은 수준이며, 일부 산업에서만 예외적으로 활용: 조사 기업의 20%만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광업(60%), 전력(53%), 운송(32%)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지표를 보고하는 기업은 1/3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 전체 산업을 통틀어 보고서 작성자의 약 30%만이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지표의 수는 평균적으로 기업당 약 4개 수준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사회** 적정 임금 & 인권 영향

- 대부분의 보고서는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 90% 이상의 작성자가 자사 직원에게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유럽경제지역(EEA)과 그 외 지역(non-EEA)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sup>4</sup>
- S1-17 자사 영업 내 차별 사건: 분석 대상 기업 중 81%가 자사 영업에서 차별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보고된 사건 수는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sup>4</sup>
- S1-17 자사 영업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기업의 78%가 해당 데이터포인트를 공시했지만, 그 중 실제로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한 기업은 5%에 불과했습니다.<sup>4</sup> 대부분의 기업은 식별된 사건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 S2-4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기업 중 약 1/3이 ESRS S2 기준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포인트를 공시했지만, 그 중 실제로 한 건 이상의 사건을 보고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sup>4</sup> 대부분의 기업은 식별된 사건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3. 현재 “IG4(Implementation Guidance 4)”는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은 초안 상태이며, 2025년 2월 26일 EFRAG 지속가능성 보고 위원회(SRB) 회의에서 다뤄진 사무국이 정리한 버전을 EFRA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5.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 2 서론

2025년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최초 의무 보고 기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기업들은 2024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맞춰 공시해야 하며, 이는 EU 전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Omnibus)”로 불리는 간소화 패키지를 채택하여,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단순화하고 규제 준수의 복잡성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내법으로의 전환 여부나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와 관계없이, ‘Wave 1’<sup>6</sup>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ESRS에 부합하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ESG 정보의 양과 명확성, 통찰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준 해석의 어려움, 보고의 일관성 확보, 보고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 지속적인 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초기 보고 관행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3 분석 범위

이번 분석은 2024 회계연도에 대해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 CSRD에 따라 발행된 문서만을 포함하며, 2025년 4월 20일 기준으로 식별 및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부 보고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생성형 AI 분석** 앞서 언급한 모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 분석 결과는 각 질문별로 50개 보고서를 표본으로 수작업 검토하였으며,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데스크 리서치(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도 함께 반영되었고, 해당 내용은 적절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ii) 사례 연구** 일부 지속가능성 보고서(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EFRAG 사무국이 선별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 사례는 정보를 정제한 후 개별 기업 사례 연구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 산업분류 기준

비금융기관의 경우, EU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NACE(산업활동 통계 분류)<sup>7</sup>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up>9</sup> 기준에 따라 은행, 보험, 기타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AI 분석 대상 기업들의 산업 분류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비금융기관(non-FIs)”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제조업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금융기관(FIs)”은 “17%”를 차지하며, 주로 “은행(11%)”이 포함됩니다.

Industry classifications	#	%
<b>Non-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b>	<b>544</b>	<b>83%</b>
Manufacturing	250	38%
Information & Communication	67	10%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46	7%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39	6%
Transportation and storage	31	5%
Electricity, gas, steam & air conditioning supply	32	5%
Construction	24	4%
Real estate activities	17	3%
Others	38	6%
<b>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b>	<b>112</b>	<b>17%</b>
Bank	74	11%
Insurance	29	4%
Other Financial Services	9	1%
<b>TOTAL</b>	<b>656</b>	<b>100%</b>

그림 1 |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 수(#)와 비율 (%)

6. 2024 회계연도부터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 기업들로, 최초 보고서는 2025년에 제출됩니다.

7. NACE: 유럽 공동체 내 경제 활동에 대한 통계 명명법; GICS: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 분석 대상 지역

2025년 4월 20일 기준으로 식별 및 수집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 데이터셋은 관찰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CSRD가 아직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에 본사를 둔 기업이 97%, 비EU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3%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16%), 독일(13%), 핀란드(12%)가 CSRD에 맞춘 보고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EU 외 지역에서는 스위스와 영국이 주요 국가로, 두 나라에서 총 12개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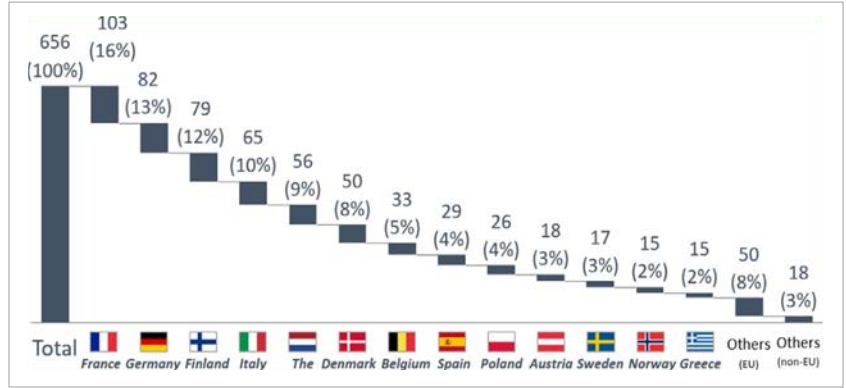


그림 2 | 본사 소재 국가별 지속가능성 보고서 수(%) 및 비율(%)

## 기업 규모

오른쪽 차트는 국가별 평균 기업 규모를 보여주며, 비금융기관은 매출 기준으로, 금융기관은 총자산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분석에서는 다양한 기업 규모와 지리적 범위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Wave 1"에 속한 기업<sup>8</sup>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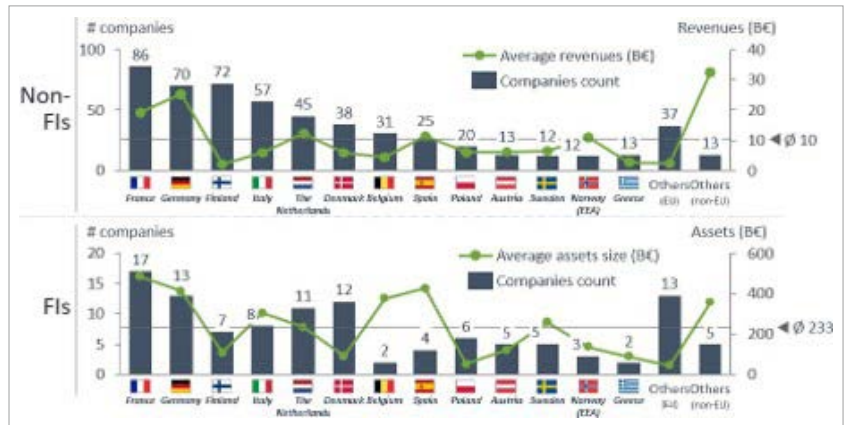


그림 3 | 본사 소재 국가별 GenAI 분석 대상 기업 수(%) 및 평균 규모 (비금융기관은 매출 기준, 금융기관은 자산 기준, 단위: 십억 유로(B€)) (2025년 기준)

- “비금융기관(Non-FIs)”의 경우, 프랑스, 독일, 핀란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 수에서는 가장 많지만, 평균 매출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타(EU 외 지역)”의 평균 매출이 가장 높는데 (약 300억 유로), 이는 스위스와 영국에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평균치를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 “금융기관(FIs)”의 경우에도 평균 기업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금융기관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프랑스·스페인·벨기에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자산 규모가 특히 크게 나타납니다.
- 전반적으로 수집된 보고서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소규모기업을 고르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들(EEA 및 기타)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8. 최소 기준은 직원 수 500명 이상, 자산 2,500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5,000만 유로 이상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있으며, 이는 CSRD 2.0 이전의 CSRD 요건에 따른 기준입니다.)



## 4 Cross-cutting standards

### 4-1. 보고서 구조 및 길이

#### 핵심 사항 1 섹터 및 산업별 보고서 페이지 수

- 지속가능성 관련 서술의 분량은 섹터 및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 존재:
  - ▶ 평균 분량은 약 115페이지이며, 중앙값은 100페이지입니다.
  - ▶ 가장 긴 보고서는 약 440페이지이고, 가장 짧은 보고서는 약 25페이지입니다.
  - ▶ 전체 작성자의 약 25%만이 70페이지 미만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다양한 작성 방식: 일부 보고서는 길고 서술형인 반면, 간결한 문장과 도식화한 형태를 보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FI)의 보고서 분량이 더 많음: FI의 보고서 평균 분량은 약 140페이지이며, 비금융기관(Non-FI)은 평균 110페이지입니다. 특히 EU 텍소노미 보고서는 FI가 Non-FI보다 현저히 더 긴 경향이 있습니다.
- 남유럽에 본사를 둔 기업의 보고서 분량이 더 많음: 남유럽 국가(예: 스페인, 이탈리아)의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더 긴 반면, 북유럽 국가(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성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EFRAG 사무국은 이와 같은 경향의 배경에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i) **문화적 관습** 작성자들이 자사의 재무제표 평균 분량에 맞춰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길이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

ii) **동종업계 비교** 북유럽 작성자들은 동종 기업들의 작성 스타일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Average # of pages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135	109	68	131	85	69	93	222	115	141	69	87	137	105	110	545
▶ Financial	132	164	119	176	112	76	*	304	170	206	111	123	*	132	141	111
<b>Total</b>	<b>135</b>	<b>117</b>	<b>73</b>	<b>137</b>	<b>91</b>	<b>71</b>	<b>95</b>	<b>233</b>	<b>128</b>	<b>159</b>	<b>82</b>	<b>94</b>	<b>140</b>	<b>112</b>	<b>115</b>	<b>656</b>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4 | 국가별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평균 보고서 페이지 수(%)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Average # of pages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135	109	68	131	85	69	93	222	115	141	69	87	137	105	110	545
Manufacturing	123	115	69	139	84	64	89	168	104	149	68	86	*	114	106	250
Information and com...	127	86	64	97	67	73	133	214	97	*	*	80	-	69	96	66
Wholesale and retail	203	92	66	*	87	*	*	*	128	*	*	-	*	89	107	46
Professional, scientifi...	113	98	76	104	*	*	*	-	-	-	*	*	-	*	97	31
Transportation and St...	193	123	65	-	*	78	*	-	-	-	-	-	141	100	115	31
Electricity, gas, steam	*	103	*	157	70	*	-	332	*	*	-	*	*	190	159	32
Real estate	148	*	76	*	*	*	*	234	*	*	-	-	-	*	139	24
Real estate activities	162	*	-	-	*	-	*	-	-	*	-	-	*	108	129	17
Administrative and su...	*	-	-	*	*	*	-	*	*	-	-	-	*	-	86	10
Mining and quarrying	*	-	*	-	*	-	-	-	*	-	-	*	-	96	102	10
Other Non-Financial	160	120	60	*	-	*	-	*	*	-	*	-	*	59	109	19
▼ Financial	132	164	119	176	112	76	*	304	170	206	111	123	*	132	141	111
Bank	133	223	133	192	110	78	*	318	172	234	118	*	*	152	155	74
Insurance	141	112	*	*	120	74	-	*	*	*	*	*	-	119	117	29
AM & other Fis	*	*	-	*	*	-	-	-	-	-	-	-	-	77	94	8
<b>Total</b>	<b>135</b>	<b>117</b>	<b>73</b>	<b>137</b>	<b>91</b>	<b>71</b>	<b>95</b>	<b>233</b>	<b>128</b>	<b>159</b>	<b>82</b>	<b>94</b>	<b>140</b>	<b>112</b>	<b>115</b>	<b>656</b>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5 | 국가 및 산업별 평균 보고서 페이지 수(%)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9. 보고서의 길이는 페이지 수와 문자 수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나, 두 기준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페이지 수 기준의 데이터와 차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분량은 중요한 Topical standards 수 및 기업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제한적임:**

- 기업 수준의 구조적 요인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 ▶ 중요한 Topical standards 개수 (공시 범위의 대응 지표).
  - ▶ 기업 규모 (비금융기관은 매출 기준,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 기준)
- 두 경우 모두 지속가능성 보고서 길이와의 상관관계는 제한적입니다. (주제 수:  $R^2 = 0.04$ , 기업 규모:  $R^2 = 0.03$ ).
- 이는 더 많은 주제를 공시하거나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반드시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고서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요인들:**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길이 차이는 각 Topical standards에 따른 공시의 깊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 대해 수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보고서가 더 길다고 해서 반드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서술이 길어지거나 정책, 실행방안, 목표 등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산업별 및 지역별 맥락이라는 초기 결론을 더욱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 지역에 따라 작성자간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대 수준과 관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6 | 보고서 길이(페이지 수)와 중요한 Topical standards 수 및 기업 규모(십억 유로 단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

## 4-2. 중요성 평가

**핵심 사항 1 섹터 및 국가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의 유형**

- 조사 대상 기업의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3가지 Topical standards:
  - ▶ E1 기후변화 (98%)
  - ▶ S1 자사 근로자 (99%)
  - ▶ G1 기업 윤리 (93%)
- 자주 보고되는 Topical standards: E5 (순환 경제, 65%);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63%); S4 (소비자 및 최종 소비자, 68%).
-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중요하다고 인용되는 Topical standard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33%); S3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30%).
- 금융기관(FI)과 비금융기관(non-FI)은 동일한 Topical standards에 대해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 예를 들어, '순환경제(Circularity)'는 비금융기관의 약 65%에게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약 30%만이 중요하다고 보고하며, '가치사슬 내 근로자(Workers in the Value Chain)'는 비금융기관의 약 70%에게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약 35%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표준화된 형식(예: Topical standards, 세부 주제(Sub-topic) 또는 세부 하위 주제(Sub-sub topic) 수준)으로 보고: 이를 통해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하고 보고 관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hare (%) of companies reporting each ESRS topical standard as material

	E1 Climate Change	E2 Pollution	E3 Water and marine resources	E4 Biodiversity	E5 Circular economy	S1 Own workforce	S2 Workers in the value chain	S3 Affected communities	S4 Consumers and end-users	G1 Business conduct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8%	41%	38%	46%	63%	98%	68%	40%	68%	93%	545
▶ Financial	96%	12%	13%	38%	31%	100%	36%	19%	71%	93%	111
Total	98%	38%	33%	39%	65%	99%	63%	30%	68%	93%	656
# Companies Analyzed	646	252	217	256	424	647	415	199	445	613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7 | 국가 및 섹터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 유형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Share (%) of companies reporting each ESRS topical standard as material

	E1 Climate Change	E2 Pollution	E3 Water and marine resources	E4 Biodiversity	E5 Circular economy	S1 Own workforce	S2 Workers in the value chain	S3 Affected communities	S4 Consumers and end-users	G1 Business conduct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8%	41%	38%	46%	63%	98%	68%	40%	68%	93%	545
Manufacturing	100%	62%	50%	41%	85%	99%	76%	29%	61%	92%	250
Information and com...	94%	5%	5%	15%	53%	100%	55%	17%	74%	94%	66
Wholesale and retail	98%	43%	33%	37%	80%	96%	72%	26%	67%	96%	46
Professional, scientifi...	100%	22%	18%	35%	55%	100%	68%	25%	65%	100%	440
Transportation and St...	97%	58%	13%	42%	58%	97%	61%	39%	61%	90%	31
Electricity, gas, steam	100%	41%	41%	62%	72%	94%	78%	72%	75%	84%	32
Construction	100%	46%	46%	71%	88%	100%	83%	50%	46%	92%	24
Real estate activities	100%	18%	65%	53%	76%	100%	53%	53%	82%	94%	17
Administrative and su...	90%	*	*	*	30%	100%	80%	30%	80%	90%	10
Mining and quarrying	100%	70%	70%	80%	40%	100%	90%	80%	*	100%	10
Other Non-Financial	95%	*	42%	26%	58%	95%	32%	21%	68%	95%	199
▼ Financial	96%	12%	13%	38%	31%	100%	36%	19%	71%	93%	111
Bank	100%	7%	9%	34%	16%	99%	23%	24%	92%	96%	74
Insurance	100%	17%	17%	41%	45%	100%	48%	14%	83%	97%	29
AM & other Fis	88%	-	-	*	-	100%	*	-	38%	88%	8
Total	98%	38%	33%	39%	65%	99%	63%	30%	68%	93%	656
# Companies Analyzed	646	252	217	256	424	647	415	199	445	613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8 | 국가 및 섹터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 유형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핵심 사항 2 섹터 및 국가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의 개수

- 평균적으로 10개 중 6개의 Topical standards를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된 영향, 위험, 기회(IROs)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가치사슬(Value Chain) 영역에 대해 (Topical standards/세부 주제(Sub-topic)/세부 하위 주제(Sub-sub topic)에서) Topical standards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비금융기관(평균 6개)은 금융기관(평균 5개)보다 더 많은 Topical standards가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접근 방식에서의 뚜렷한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 프랑스의 도매-소매 및 건설 업종, 이탈리아의 전기-가스 업종에서 평균 9개의 중요한 주제가 보고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 금융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보고되는 주제 수가 적은 편이며, 보통 4~6개 수준입니다.
  - ▶ 지역별 보고 경향이 다시 한번 나타나며, 남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중요한 Topical standards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스페인: 7개, 프랑스: 7개, 이탈리아: 7개 vs. 노르웨이: 6개, 핀란드: 6개, 덴마크: 6개).

Average # of ESRS topical standards considered material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7	6	6	7	6	6	6	8	6	7	7	6	6	6	7	545
▶ Financial	5	6	6	6	6	4	*	4	4	4	6	4	*	4	5	111
Total	7	6	6	7	6	6	6	7	6	6	7	6	6	6	6	656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9 | 국가 및 섹터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의 평균 개수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Average # of ESRS topical standards considered material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7	6	6	7	6	6	6	8	6	7	7	6	6	6	7	545
Manufacturing	8	7	6	7	6	7	7	8	7	8	7	6	*	8	7	250
Information and com...	6	5	5	5	4	4	5	4	6	*	*	6	-	7	5	66
Wholesale and retail	9	7	6	*	7	*	*	*	6	*	*	-	*	5	6	46
Professional, scientifi...	6	5	5	7	*	*	*	-	-	-	*	*	-	*	6	40
Transportation and St...	8	5	6	*	*	7	*	-	-	-	-	-	6	4	6	31
Electricity, gas, steam	*	6	*	9	5	*	-	8	*	*	-	*	*	8	7	32
Construction	9	*	6	*	*	*	*	8	*	*	-	-	-	*	7	24
Real estate activities	8	*	-	-	*	-	*	-	-	*	-	-	*	7	7	17
Administrative and su...	*	-	-	*	*	*	-	*	*	-	-	-	*	-	6	10
Mining and quarrying	*	-	*	-	*	-	-	-	*	-	-	*	-	8	8	10
Other Non-Financial	8	4	5	*	-	*	-	*	*	-	*	-	*	5	5	19
▼ Financial	5	6	6	6	6	4	*	4	4	4	6	4	*	4	5	111
Bank	4	6	6	6	6	4	*	4	4	4	6	*	*	5	5	74
Insurance	6	6	*	*	7	5	-	*	*	*	*	*	-	5	6	29
AM & other Fis	*	*	-	*	*	-	-	-	-	-	-	-	-	3	4	8
Total	7	6	6	7	6	6	6	7	6	6	7	6	6	6	6	656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0 | 국가 및 섹터별 중요한 Topical standards의 평균 개수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핵심 사항 3 선택된 중요한 Topical standards 수의 분포 현황

- Topical standards에 따라 기업의 중요성 적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10개의 Topical standards를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한 기업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 기업의 약 52%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Topical standards 개수를 4개~6개로 공시했습니다.
- 기업의 약 25%는 중요한 주제를 4개 이하로 선정했으며, 이 중 9개 기업은 2개만, 1개 기업은 단 1개만을 중요한 Topical standards로 공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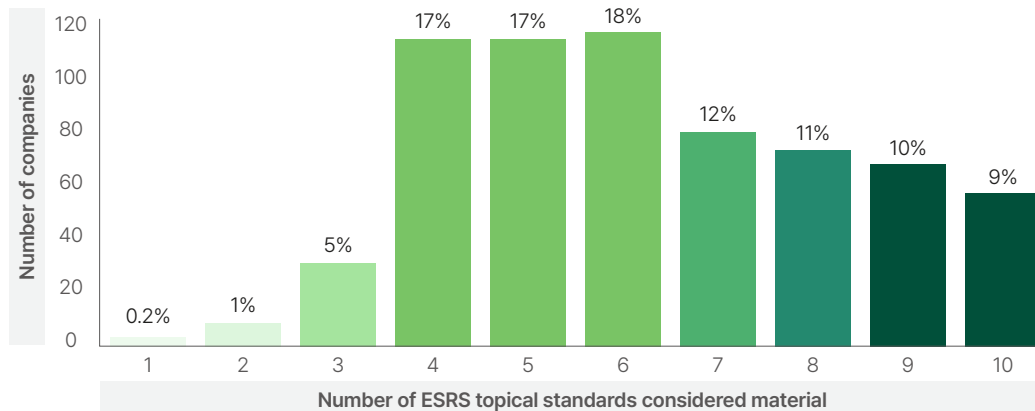


그림 11 | 중요한 ESRS Topical standards별 기업수 (2025년)

### 핵심 사항 4 가장 중요성이 큰 중요한 세부 주제(sub-topic) 현황

자주 중요하다고 언급된 5가지 세부 주제(sub-topic):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다음 다섯 가지 세부 주제(sub-topic)를 중요하다고 보고합니다 – “기후변화 완화”(E1), “에너지”(E1), “자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S1), “자사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 및 기회”(S1), “기업 윤리”(G1).

Share (%) of companies reporting each sub - topic as material

	E1 Climate change		S1 Own Workforce		G1 Business conduct
	Climate change Mitigation	Energy	Working conditions...	Equal treatment	Corruption and bribery
► Non-Financial	97%	91%	94%	82%	81%
► Financial	98%	66%	86%	89%	90%
Total	97%	87%	93%	84%	83%
# Companies	635	568	609	548	543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2 |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세부 주제(sub-topic) (E1 - 영향받는 지역사회, S1 - 자사 근로자, G1 - 기업 윤리)



## 핵심 사항 5 가장 적게 공시된 중요한 세부 주제(sub-topic) 현황

드물게 중요하다고 언급된 5가지 세부 주제(sub-topic): 전체 기업의 5% 이하만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을 중요하다고 보고합니다. - “생물과 식량 자원의 오염”(E2), “미세플라스틱”(E2), “지역사회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S3), “원주민의 권리”(S3), “동물 복지”(G1)

Share (%) of companies reporting each sub - topic as material

	E2 Pollution		S3 Affected communities		G1 Business conduct
	Pollution of living organisms...	Microplastics	Communities' civil...	Rights of indigenous...	Animal welfare
▶ Non-Financial	3%	5%	6%	3%	4%
▶ Financial	-	-	6%	-	-
Total	3%	5%	6%	3%	4%
# Companies	16	25	37	18	25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3 |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을 기준으로 집계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세부 주제(sub-topic) (E1 - 영향받는 지역사회, S1 - 자사 근로자, G1 - 기업 윤리)

## 4-3. 이중 중요성 평가(DMA)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 핵심 사항

- 거의 모든 기업(97%)이 이중 중요성 평가(DMA)의 일환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주로 직원)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는 내부 의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 주로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내부 이해관계자(97%), 고객(약 70%), 공급업체(약 65%), 투자자(약 60%)의 높은 참여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 기관(36%), NGO(33%), 지역사회(30%), 산업 단체(22%), 학계(14%), 노동조합(11%) 등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섹터별로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Share (%) of companies engaging each specific stakeholder in the DMA

	Internal stake-holders	Clients	Suppliers	Investors	Authorities	NGO	Partner	Communities	Industry union	Academia	Competitors	Trade union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9%	68%	66%	60%	41%	33%	39%	36%	23%	19%	15%	13%	545
▶ Financial	99%	62%	43%	56%	44%	47%	30%	20%	22%	14%	15%	9%	111
Total	97%	69%	66%	59%	36%	33%	32%	30%	22%	14%	13%	11%	656
# Companies	639	455	434	385	237	219	211	198	146	94	83	74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4 | 이중 중요성 평가(DMA)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기업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별 집계)

Share (%) of companies engaging each specific stakeholder in the DMA

	Internal stake-holders	Clients	Suppliers	Investors	Authorities	NGO	Partner	Communities	Industry union	Academia	Competitors	Trade union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9%	68%	66%	60%	41%	33%	39%	36%	23%	19%	15%	13%	545
Manufacturing	96%	68%	72%	56%	29%	32%	25%	35%	25%	17%	11%	13%	250
Information and com...	97%	67%	74%	58%	38%	33%	50%	12%	17%	14%	11%	8%	66
Wholesale and retail	96%	70%	76%	59%	28%	41%	35%	22%	26%	*	24%	7%	46
Professional, scientifi...	100%	82%	72%	72%	30%	28%	38%	30%	15%	18%	12%	8%	40
Transportation and St...	100%	87%	81%	55%	58%	45%	52%	32%	19%	*	13%	32%	31
Electricity, gas, steam	100%	53%	53%	50%	47%	31%	31%	62%	19%	16%	9%	12%	32
Construction	100%	67%	67%	62%	46%	17%	42%	38%	46%	21%	12%	12%	24
Real estate activities	100%	76%	47%	65%	59%	*	41%	53%	24%	-	24%	-	17
Administrative and su...	100%	50%	50%	40%	*	*	*	*	*	-	*	*	10
Mining and quarrying	100%	60%	80%	80%	40%	40%	*	40%	*	30%	*	*	10
Other Non-Financial	100%	63%	58%	58%	37%	26%	37%	37%	16%	16%	*	*	19
▼ Financial	99%	62%	43%	56%	44%	47%	30%	20%	22%	14%	15%	9%	111
Bank	97%	80%	50%	66%	50%	39%	27%	20%	20%	15%	9%	9%	74
Insurance	100%	55%	41%	52%	38%	55%	24%	21%	24%	14%	21%	*	29
AM & other Fis	100%	50%	38%	50%	*	*	38%	-	-	-	-	-	8
Total	97%	69%	66%	59%	36%	33%	32%	30%	22%	14%	13%	11%	656
# Companies Analyzed	639	455	434	385	237	219	211	198	146	94	83	74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5 | 이중 중요성 평가(DMA)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기업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사례연구

이중 중요성 평가(DMA)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 트렌드

대부분의 기업은 중요성 평가에서 주로 자사의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경향이 높은 반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최소 1~2명의 시민사회 대표를 집중적인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기업 소개

만성 질환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추구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 이해관계자 유형

- 해당 기업은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과 집중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목록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 참여 목적

-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재무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반면, 더 넓은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는 영향 기반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Stakeholder type	Purpose of engagement	Engagement channel	# of stakeholders
Investors	Inform financial materiality and expectations on sustainability	1:1 interviews	#
Suppliers	Understand upstream ESG risks and opportunities	1:1 interviews	#
End-users/beneficiaries	Capture social impacts and access-to-care considerations	Focus group	#
Internal staff	Identify internal ESG priorities and operational impacts	Online survey	#
Scientific experts	Validate environmental impact assumptions and materiality logic	1:1 interviews	#
NGOs	Understand impact on communities and vulnerable groups	Focus group	#

#### [비금융기업] 지역사회의 참여 사례

- 사업장 인근 주민 의견 수렴: 회사는 소음, 오염, 토지 이용 변화 등과 같은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지역 NGO 및 커뮤니티 단체와의 협력: 공정성, 접근성, 그리고 기업 영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과 소통했습니다.
- 학교 및 지역 연구자들과의 협업: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 학교와 연구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 지자체 공무원 및 도시계획 담당자와의 협의: 기업 활동이 지역 규정과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시청 관계자 및 도시계획자들과 협력했습니다.

#### [금융기업] 지역사회의 참여 사례 (대리인을 통한 참여 포함)

- 고객: 은행, 보험, 투자 상품이 개인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고객들과 소통하였으며, 금융 포용성, 접근성, 비용 부담 등의 측면을 평가했습니다.
- 투자자 및 금융 분석가와의 협의: 정보 공개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위험 익스포저 수준을 평가하며, 기관의 장기적 회복력과 전략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투자자 및 분석가들과 협의했습니다.
- 공공기관 및 규제 당국과의 협력: 중요성 평가가 이후 관련 금융 리스크, 사회적 보호 장치 등 변화하는 규제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했습니다.
- NGO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후 정의, 지역사회 영향, 책임 있는 금융 등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NGO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판 리스크와 사회적 기대를 평가했습니다.

## 4-4. 정책, 조치 및 목표(PATs) 보고

### 사례연구

PAT 보고 – 환경, 사회, 거버넌스

#### 트렌드

많은 기업들이 PAT(정책, 조치, 목표)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중요한 사안(material matters)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PAT가 특정 중요한 사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잘 설명하고, 통찰력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기업 소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상장 기업으로, 에너지 및 자동화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산업, 상업, 인프라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에너지 관리, 자동화 기술, 그리고 효율성, 지속가능성,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예시 테이블

- 기후 관련에 대한 정책(Policy), 조치(Action), 목표(Target) 정보가 명확하게 참조되어 있으며, 관련 보고서 섹션과 페이지 번호에 대한 링크가 제공되어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구조화된 매핑(mapping)”은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Title of the reference table			
Material matter			
ESRS DR		Report section	Page
E1.GOV-3	Description of DRs	Hyperlink to ext. doc (and page)	
E1-1			
E1.SBM-3			
E1.IRO-1	Policies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Report section	Page
E1-2	Actions and resourc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policies		
E1-3	Targets rela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1-4			

### 보고 내용

- 정책(Policy), 조치(Action), 목표(Target) 정보는 Topical standards에 따라 “1페이지 형식(one-pager)”으로 제공되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1페이지 문서에는 관련 정책을 참조하는 소개 문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정책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함께 제공됩니다.

Material matter (S1)		
Context and description of the material matter	Approach to material matter 1 and policies adopted	Approach to material matter 2 and policies adopted
	Approach to material matter 1 and policies adopted	Approach to material matter 2 and policies adopted
		Targets and progress
		Key actions taken

## 4-5. 영향·위험·기회(IROs) 및 가치사슬(Value Chain) 매핑

### 사례연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IRO(영향, 위험, 기회) 매핑

#### 트렌드

기업들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에서 영향(Impact), 위험(Risk), 기회(Opportunity)을 식별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요한 가치사슬 단계별로 IRO를 명확히 나열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업 소개

전기 장비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장 기업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상업, 주거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사업은 전력 분배,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IROs 리스트

- 자체 영업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식별된 모든 영향(Impact), 위험(Risk), 기회(Opportunity)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였습니다.
- 각 IRO에 대해 명확하고 구조화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의 관련성과 시사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IRO는 범주(위험, 기회, 영향) 및 “영향의 성격(긍정적 vs.부정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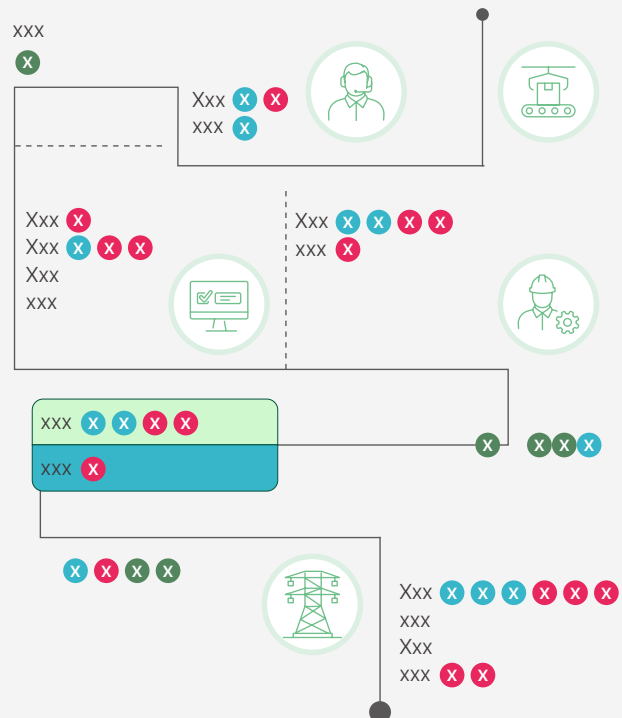
Risks	Positive impact
1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Opportunities	Negative impact
1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 가치사슬 매핑

-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모든 IRO(영향, 위험, 기회)를 매핑하며, 이는 업스트림 공급업체(원자재, 부품)부터 다운스트림 최종 사용자(건물, 인프라,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됩니다.
- 자체 영업 영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업 부문, 자산 유형, 직접 고용 및 계약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또한 투자자, 지역사회, NGO,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도 통합하여,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전체적 관점(holistic view)”을 보여줍니다.





동 챕터에서는 환경 및 사회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EFRAG 사무국이 선정한 일부 Topical standard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5-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CTP)

#### 핵심 사항

- 작성자의 절반 이상(55%)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보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 국가 및 섹터별로 전환 계획과 공시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전환 계획과 공시 수준의 성숙도 차이를 시사합니다.
- 국가별 동향:
  - ▶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전환 계획 채택에 앞서 있으며, 네덜란드(73%), 스웨덴(69%), 덴마크(69%)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 전환 계획의 채택은 국가별 요인에 크게 좌우되며, 동일 국가 내 기업 간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유도하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의 기후 목표 수준 (예: 스웨덴과 덴마크는 매우 야심찬 넷제로(Net Zero)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다만, 모든 국가가 이 경향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핀란드는 예외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로, 내용의 구체성과 형식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 IG4 초안<sup>10</sup>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CTP) 구성 요소를 충분히 설명한 사례는 소수에 그치며, 이는 형식적 선언과 실제 공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 ▶ 약 70%의 기업이 2030년 또는 그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스코프 1 및 2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5°C 목표와 부합하는 기후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sup>11</sup>
    - 이 중 60%는 SBTi와 같은 외부 기준에 의해 목표가 검증되었으며, 나머지 40%는 외부 검증 없이 산업별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습니다.<sup>11</sup>
    -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산업별 프레임워크(예: Net Zero Banking Alliance)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약 40%는 SBTi 검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sup>11</sup>
    - 한편, 전체 기업의 약 34%는 여전히 명확한 단기 스코프 1 및 2 목표가 없으며, 16%는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를 보고하고 있어, 일부는 1.5°C를 초과하는 더 강화된 목표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sup>11</sup>

Share (%) of companies declaring to have a CTP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62%	73%	48%	21%	71%	74%	64%	76%	15%	61%	72%	50%	61%	46%	56%	545
▶ Financial	50%	41%	42%	37%	81%	50%	*	50%	0%	40%	60%	100%	*	33%	48%	111
Total	60%	69%	48%	23%	73%	69%	67%	72%	12%	56%	69%	60%	67%	43%	55%	656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6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선언한 기업의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10. IG4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초안이며, 사무국이 마련한 최종 초안은 2025년 2월 26일 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RB) 회의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EFRA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Share (%) of companies declaring to have a CTP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62%	73%	48%	21%	71%	74%	64%	76%	15%	61%	72%	50%	61%	46%	56%	545
Manufacturing	69%	72%	54%	16%	60%	84%	60%	70%	60%	42%	83%	75%	*	57%	60%	250
Information and com...	50%	100%	33%	0%	100%	60%	100%	100%	0%	*	*	66%	-	20%	50%	66
Wholesale and retail	40%	50%	37%	*	80%	*	*	*	0%	*	*	-	*	30%	50%	46
Professional, scientifi...	50%	33%	75%	42%	*	*	*	-	-	-	*	*	-	*	50%	40
Transportation and St...	50%	100%	50%	*	*	66%	*	-	-	-	-	-	33%	60%	61%	31
Electricity, gas, steam	*	100%	*	50%	100%	*	-	75%	*	*	-	*	*	66%	71%	32
Construction	75%	*	20%	*	*	*	*	75%	*	*	-	-	-	*	54%	24
Real estate activities	71%	*	-	-	*	-	*	-	-	*	-	-	*	66%	70%	17
Administrative and su...	*	-	-	*	*	*	-	*	*	-	-	-	*	-	20%	10
Mining and quarrying	*	-	*	-	*	-	-	-	*	-	-	*	-	66%	50%	10
Other Non-Financial	66%	100%	75%	*	-	*	-	*	*	-	*	-	*	0%	47%	19
▼ Financial	50%	41%	42%	37%	81%	50%	*	50%	0%	40%	60%	100%	*	33%	48%	111
Bank	50%	33%	60%	50%	100%	37%	*	66%	0%	25%	75%	*	*	45%	52%	74
Insurance	50%	40%	*	*	75%	75%	-	*	*	*	*	*	-	0%	41%	29
AM & other Fis	*	*	-	*	*	-	-	-	-	-	-	-	-	33%	37%	8
<b>Total</b>	<b>60%</b>	<b>69%</b>	<b>48%</b>	<b>23%</b>	<b>73%</b>	<b>69%</b>	<b>67%</b>	<b>72%</b>	<b>12%</b>	<b>56%</b>	<b>69%</b>	<b>60%</b>	<b>67%</b>	<b>43%</b>	<b>55%</b>	<b>656</b>
# Companies Analyzed	103	83	79	65	56	51	33	29	26	18	16	15	15	67	656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7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선언한 기업의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사례연구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CTP) 공시

#### 트렌드

대부분의 기업은 명확한 목표, 실행 수단,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부족한 상태로 CTP를 공시하고 있으며, 반면 정량화된 탈탄소 수단을 포함한 명확하고 투명한 CTP 사례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 기업 소개

산업, 상업,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장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운송 및 물류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5°C 목표 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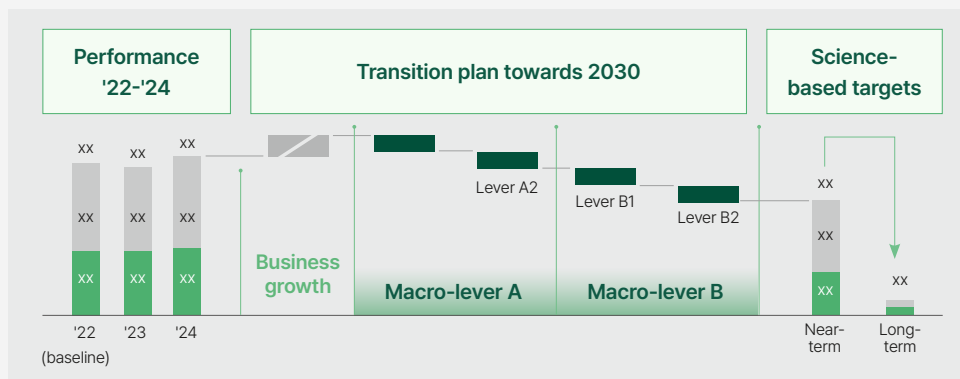
- 이 기업은 스코프 1, 2, 3 전 범위에 대해 설정한 단기 및 장기 기후 목표가 'SBTi'에 의해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 탈탄소 수단

-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에 있어 각 탈탄소 수단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정량화함.
- 각 수단에 대한 통제 수준(높음 vs 낮음)을 강조함.

### 투자 및 자금 조달

- 관련된 탈탄소 수단에 대해 자본적 지출(Capex)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5-2. 내부 탄소 가격제(ICP) 및 생물다양성 지표

### 핵심 사항 1 섹터 및 국가별 내부 탄소 가격 현황

- 내부 탄소 가격제(ICP)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의 약 20%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약 70%)은 25% 이하의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내부 탄소 가격제(ICP)의 도입은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광업은 60%, 전기/가스 산업은 약 50%, 운송/보관 산업은 약 30%의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기후 규제와 공시 기준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내부 탄소 가격제(ICP)의 활용이 더 넓게 나타납니다 (예: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 서비스 산업(예: 정보통신 및 금융)은 국가 전반에서 내부 탄소 가격제(ICP) 도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Share (%) of companies using ICP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35%	30%	9%	12%	35%	10%	19%	40%	5%	38%	27%	33%	7%	34%	24%	545
► Financial	6%	0%	0%	12%	9%	0%	*	50%	0%	0%	0%	33%	*	0%	5%	111
<b>Total</b>	<b>31%</b>	<b>27%</b>	<b>9%</b>	<b>12%</b>	<b>30%</b>	<b>8%</b>	<b>18%</b>	<b>41%</b>	<b>4%</b>	<b>28%</b>	<b>19%</b>	<b>33%</b>	<b>7%</b>	<b>25%</b>	<b>21%</b>	<b>656</b>
<b># Companies Analyzed</b>	<b>103</b>	<b>83</b>	<b>79</b>	<b>65</b>	<b>56</b>	<b>51</b>	<b>33</b>	<b>29</b>	<b>26</b>	<b>18</b>	<b>16</b>	<b>15</b>	<b>15</b>	<b>67</b>	<b>656</b>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8 | 금융기관(FIs)과 비금융기관(non-FIs)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내부 탄소 가격제(ICP) 사용을 선언한 기업의 비율

Share (%) of companies using ICP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35%	30%	9%	12%	35%	10%	19%	40%	5%	38%	27%	33%	7%	34%	24%	545
Manufacturing	46%	40%	12%	9%	34%	10%	30%	40%	0%	42%	16%	50%	*	42%	29%	250
Information and com...	20%	42%	8%	0%	0%	0%	0%	0%	0%	*	*	0%	-	20%	10%	66
Wholesale and retail	20%	25%	0%	*	40%	*	*	*	0%	*	*	-	*	0%	13%	46
Professional, scientifi...	20%	11%	0%	14%	*	*	*	-	-	-	*	*	-	*	15%	40
Transportation and St...	50%	33%	25%	*	*	33%	*	-	-	-	-	-	0%	60%	32%	31
Electricity, gas, steam	*	20%	*	50%	100%	*	-	75%	*	*	-	*	*	100%	53%	32
Construction	25%	*	0%	*	*	*	*	50%	*	*	-	-	-	*	20%	24
Real estate activities	0%	*	-	-	*	-	*	-	-	*	-	-	*	33%	5%	17
Administrative and su...	*	-	-	*	*	*	-	*	*	-	-	-	*	-	10%	10
Mining and quarrying	*	-	*	-	-	-	-	-	*	-	-	*	-	66%	60%	10
Other Non-Financial	33%	0%	0%	*	-	*	-	*	*	-	*	-	*	0%	10%	19
▼ Financial	6%	0%	0%	12%	9%	0%	*	50%	0%	0%	0%	33%	*	0%	5%	111
Bank	0%	0%	0%	16%	0%	0%	*	33%	0%	0%	0%	*	*	0%	2%	74
Insurance	25%	0%	*	*	0%	0%	-	*	*	*	*	*	-	0%	10%	29
AM & other Fis	*	*	-	*	*	-	-	-	-	-	-	-	-	0%	12%	8
<b>Total</b>	<b>31%</b>	<b>27%</b>	<b>9%</b>	<b>12%</b>	<b>30%</b>	<b>8%</b>	<b>18%</b>	<b>41%</b>	<b>4%</b>	<b>28%</b>	<b>19%</b>	<b>33%</b>	<b>7%</b>	<b>25%</b>	<b>21%</b>	<b>656</b>
<b># Companies Analyzed</b>	<b>103</b>	<b>83</b>	<b>79</b>	<b>65</b>	<b>56</b>	<b>51</b>	<b>33</b>	<b>29</b>	<b>26</b>	<b>18</b>	<b>16</b>	<b>15</b>	<b>15</b>	<b>67</b>	<b>656</b>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19 | 내부 탄소 가격제(ICP) 사용을 선언한 기업의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핵심 사항 2 섹터 및 국가별 생물다양성 공시 현황

- 약 30%의 작성자가 생물다양성 지표를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평균적으로 기관당 약 4개의 지표를 보고<sup>12</sup>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관들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 및 비금융 부문 간 유사한 공시율을 보입니다.
- 산업 전반에 걸쳐 공시가 매우 단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산업(예: 부동산 및 건설)은 높은 도입률을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산업은 30~4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지표 공시는 토지 또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 ▶ 건설(약 60%), 전기 및 가스(62%), 부동산(64%) - 스페인과 프랑스의 건설 기업은 100%, 프랑스의 부동산 기업은 85%가 생물다양성 지표를 보고합니다.
  - ▶ 국가별 차이가 큼: 프랑스(49%), 스웨덴(44%), 오스트리아(44%), 네덜란드(39%)는 높은 공시율을 보이며, 이탈리아(18%)와 독일(23%)은 낮은 도입률을 보입니다.

Share (%) of companies disclosing biodiversity metrics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47%	22%	26%	19%	42%	23%	22%	60%	25%	53%	45%	41%	23%	34%	32%	545
▶ Financial	56%	25%	57%	12%	27%	25%	*	0%	33%	20%	40%	0%	*	11%	28%	111
<b>Total</b>	<b>49%</b>	<b>23%</b>	<b>29%</b>	<b>18%</b>	<b>39%</b>	<b>24%</b>	<b>24%</b>	<b>52%</b>	<b>27%</b>	<b>44%</b>	<b>44%</b>	<b>33%</b>	<b>27%</b>	<b>28%</b>	<b>32%</b>	<b>656</b>
<b># Companies Analyzed</b>	<b>103</b>	<b>83</b>	<b>79</b>	<b>65</b>	<b>56</b>	<b>51</b>	<b>33</b>	<b>29</b>	<b>26</b>	<b>18</b>	<b>16</b>	<b>15</b>	<b>15</b>	<b>67</b>	<b>656</b>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20 | 금융기관(FIs)과 비금융기관(non-FIs)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생물다양성 지표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Share (%) of companies disclosing biodiversity metrics

	France	Germany	Finland	Italy	Nether-lands	Denmark	Belgium	Spain	Poland	Austria	Sweden	Norway	Greece	Other	Total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47%	22%	26%	19%	42%	23%	22%	60%	25%	53%	45%	41%	23%	34%	32%	545
Manufacturing	48%	32%	30%	22%	34%	26%	25%	30%	40%	57%	50%	75%	*	42%	34%	250
Information and com...	0%	0%	8%	0%	0%	20%	0%	33%	20%	*	*	0%	-	20%	7%	66
Wholesale and retail	40%	0%	12%	*	80%	*	*	*	0%	*	*	-	*	40%	30%	46
Professional, scientifi...	30%	0%	25%	14%	*	*	*	-	-	-	*	*	-	*	17%	40
Transportation and St...	50%	0%	75%	*	*	0%	*	-	-	-	-	-	0%	20%	25%	31
Electricity, gas, steam	*	40%	*	50%	25%	*	-	100%	*	*	-	*	*	66%	62%	32
Construction	100%	*	20%	*	*	*	*	100%	*	*	-	-	-	*	62%	24
Real estate activities	85%	*	-	-	*	-	*	-	-	*	-	-	*	33%	64%	17
Administrative and su...	*	-	-	*	*	*	-	*	*	-	-	-	*	-	10%	10
Mining and quarrying	*	-	*	-	*	-	-	-	*	-	-	*	-	66%	60%	10
Other Non-Financial	66%	0%	25%	*	-	*	-	*	*	-	*	-	*	0%	26%	19
▼ Financial	56%	25%	57%	12%	27%	25%	*	0%	33%	20%	40%	0%	*	11%	28%	111
Bank	40%	33%	60%	0%	33%	12%	*	0%	40%	0%	25%	*	*	9%	24%	74
Insurance	75%	20%	*	*	25%	50%	-	*	*	*	*	*	-	25%	41%	29
AM & other Fis	*	*	-	*	*	-	-	-	-	-	-	-	-	0%	25%	8
<b>Total</b>	<b>49%</b>	<b>23%</b>	<b>29%</b>	<b>18%</b>	<b>39%</b>	<b>24%</b>	<b>24%</b>	<b>52%</b>	<b>27%</b>	<b>44%</b>	<b>44%</b>	<b>33%</b>	<b>27%</b>	<b>28%</b>	<b>32%</b>	<b>656</b>
<b># Companies Analyzed</b>	<b>103</b>	<b>83</b>	<b>79</b>	<b>65</b>	<b>56</b>	<b>51</b>	<b>33</b>	<b>29</b>	<b>26</b>	<b>18</b>	<b>16</b>	<b>15</b>	<b>15</b>	<b>67</b>	<b>656</b>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21 | 생물다양성 지표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기준으로 집계)



### 핵심 사항 3 기업별 생물다양성 지표의 유형

기업별로 공시 관행이 다양하므로, 개별 기업 사례 대신 관찰된 내용과 실무적 예시(녹색 박스)를 종합하여 정리했습니다.

- 생물다양성 지표를 공시하는 방식이 섹터나 기업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 고유의 사업 활동에 매우 특화된 기업 특유 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여러 기업을 큰 그룹으로 묶어 거시적인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박스는 비금융 및 금융 부문에서 관찰된 생물다양성 지표의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 [비금융 기업] 생물다양성 지표 예시

- 기업의 사업장 지역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종 또는 특이종의 수: 기업이 사업장 지역(예: 숲, 광산, 에너지 시설 등)에 서식하는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를 나타냅니다.
-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이 수립된 채석장 또는 광산 부지의 비율: 기업의 채석장 또는 광산 부지 중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예: 나무 벌채 제한 등)을 갖춘 부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 복원되었거나 복원 중인 서식지 면적: 기업이 사업 활동 후 다시 식생을 복원하거나 정화하여 자연 상태로 되돌린 토지의 면적을 추적합니다.
- 영향을 받는 지역 기준으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 및 국가 보전 목록에 등재된 종의 수: 기업이 영업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종의 수를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 [금융 기업] 생물다양성 지표 예시

-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 또는 대출에서 제외된 기업 수: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 파괴(예: 산림 파괴, 서식지 훼손)의 이유로 투자하거나 대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의 수를 측정합니다.
- 생물다양성 관련 기업과의 협업 또는 참여 횟수: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과 생물다양성 관리 개선을 위해 소통하거나 영향을 미친 횟수를 나타냅니다.
-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전체 투자 중 열대우림, 습지 등 보호 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해당 지역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측정합니다.
- 기본위험노출(EaD) 기준 생물다양성 의존도 평가 (단위: 유로): 농업, 임업, 어업 등 자연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유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글로벌 생물다양성 점수(GBS):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자연 서식지가 얼마나 보존되었거나 손실되었는지를 표준화된 점수로 측정하여, 투자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사례연구

### 생물다양성 | 측정 지표와 관리 목표의 연계성

#### 트렌드

지표와 목표 간의 연계가 미흡한 기업이 대부분이며, 공시의 세부 정보나 방법론적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점차 지표와 목표의 명확한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업 소개

디자인부터 소매까지 전 가치사슬(Value Chain)에 걸쳐 운영되는 다국적 소비재 기업으로, 제조, 물류, 유통을 통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상세설명

- 해당 기업은 각 지표를 특정한 목표에 연계한 포괄적인 생물다양성 지표 세트를 정의했습니다.
- 지표에는 명확한 정의와 산정 방법론이 함께 제공되어, 투명성과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폐기물 고부가가치화(waste valorisation)”로, 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재사용 또는 에너지 회수로 처리된 비율을 의미하며, 단순 폐기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 지표는 ESRS E5 문단 37(b)의 “처분을 피한 폐기물(waste diverted from disposal)” 지표와도 연계되어 있어, 환경 기준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 폐기물 고부가가치화 지표에는 2024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고부가가치화율을 10% 포인트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목표, 기준연도, 과거 추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목표와의 격차 및 그 격차 추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지표는 재활용과 재사용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어, 에너지 회수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재사용의 중요성이 덜 강조될 수 있습니다.

### 5-3.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적 영향

#### 사례연구

#####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적 영향 분석

###### 트렌드

기후 위험을 여전히 포괄적인 서술형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만, 일부는 자산 수준의 익스포저와 매출 영향 등을 재무적 영향으로 정량화 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 소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상장 기업으로, 통합 물류 역량과 강력한 공급망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산업, 소매, 소비자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 사업은 해상 및 내륙 운송, 항만 터미널 운영, 그리고 종합 물류 및 공급망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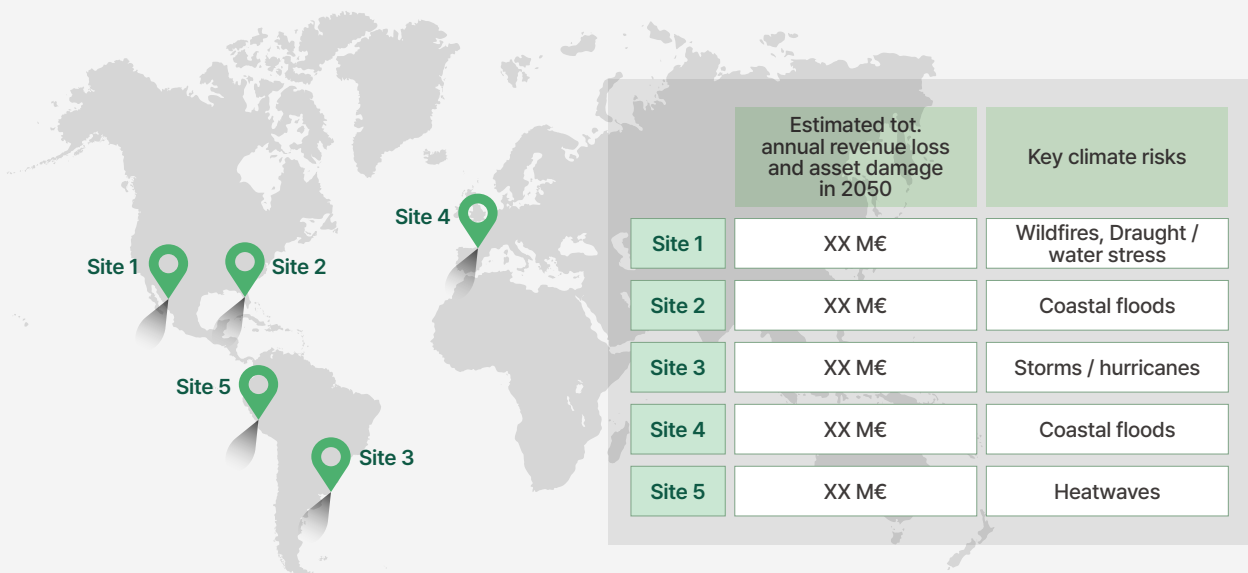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평가

- 핵심 자산(터미널, 창고, 데이터 센터, 제3자 소유 부동산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 자산을 주요 기후 위험 요소(예: 폭염, 홍수, 강풍, 수자원 스트레스 등)에 따라 매핑하고, 다양한 시계열과 시나리오를 고려했습니다.
- 2050년 기준 잠재적 기후 위험의 재무적 영향을 정량화했습니다.
- 고위험 자산은 손실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위험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완화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 시각화

- 다음은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이 높은 주요 자산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자산의 지리적 위치, 기후 위험 유형, 잠재적 피해 규모, 예상 매출 손실 등을 함께 보여줍니다.

Top 5 assets exposed to physical climate risks:



## 6-1. EEA(유럽경제지역) 내 적정 임금

## 핵심 사항

- 대부분의 기업(93%)은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 EEA(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 섹터 간 차이는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일관된 수준을 보입니다.
- 대부분의 기업은 일반적이고 글로벌한 수준의 진술을 제공하며, EEA와 비EEA 간의 구체적인 차별화는 제한적입니다.<sup>14</sup>

Share (%) of companies ensuring adequate wages to their employees in EEA

	All employees are paid an adequate wage	Not all employees are paid an adequate wage	N/A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4%	1%	5%	545
▶ Financial	92%	-	8%	111
Total	93%	1%	6%	656
# Companies	612	6	38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22 | EEA 내에서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별 집계)

Share (%) of companies ensuring adequate wages to their employees in EEA

	All employees are paid an adequate wage	Not all employees are paid an adequate wage	N/A	# Companies Analysed
▼ Non-Financial	94%	1%	5%	545
Manufacturing	92%	2%	6%	250
Information and com...	93%	-	7%	66
Wholesale and retail	91%	-	9%	46
Professional, scientifi...	95%	*	*	40
Transportation and St...	100%	-	-	31
Electricity, gas, steam	100%	-	-	32
Construction	87%	-	13%	24
Real estate activities	100%	-	-	17
Administrative and su...	90%	-	*	10
Mining and quarrying	100%	-	-	10
Other Non-Financial	100%	-	-	19
▼ Financial	92%	-	8%	111
Bank	91%	-	9%	74
Insurance	96%	-	*	29
AM & other Fis	87%	-	*	8
Total	93%	1%	6%	656
# Companies Analyzed	612	6	38	

(\*) Fewer than three companies reported (data insufficient for comparison)  
 (-) Zero companies reported (no data available)

그림 23 | EEA 내에서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산업별 비율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별 집계)

14.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 6-2.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기업별 사례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스크 리서치(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관찰 내용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트렌드

- S1-17 자사 영업 내 차별 사건: 전체 기업 중 81%가 차별 사례를 보고했으며, 보고된 사건 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S1-17 자사 영업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전체 기업의 78%가 해당 데이터포인트를 공시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을 보고한 기업은 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건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S2-4 가치사슬 내 근로자 대상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ESRS S2 기준에 따라 해당 데이터포인트를 공시했으며, 그 중 10%만이 하나 이상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식별된 사건이 없었다고 공시했습니다.

###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기업들은 자사 근로자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식별하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침해는 주로 자사 근로자 내에서 발생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 인종 또는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별, 국적, 언어, 종교, 신념,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민주적 원칙 및 다양성 존중과 부합하는 경우)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는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에서의 PAI 7 지표는 Annex I Table 3에 포함
- 괴롭힘: 성희롱, 심리적 학대,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역시 SFDR 표 3의 PAI 7과 관련됩니다.

## 6-3. 자사 근로자

### 1. 사례 연구

ESRS S1-14 보건 및 안전 | 정책(P), 조치(A), 목표(T)와 기업별 데이터 포인트 간의 연계

#### 트렌드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보건 및 안전 관련 정책을 조치나 성과 데이터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정책과 조치, 지표 및 결과를 명확하게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업 소개

EU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으로,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진단 영상, 환자 모니터링, 정보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책 개요

- 보고 대상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자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각 정책에는 상세한 설명, 관련 제3자 발행 기준서에 대한 참조, 그리고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섹션으로 교차 참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olicy	Content	Third party standards	Reference to relevant section
Policy name	In-depth policy description	Reference to any external standards leveraged to build the policy	Report's sections deep-diving the policy
...	...	...	...

## 정책과 내부 절차 및 관리 시스템의 연계 예: 보건 및 안전 추적

- 보고서의 통합 섹션에서 절차, 지표, 성과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과 내부 프로그램 간의 강력한 연계를 보여줍니다.
- 이 보고서는 일관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의 실행 현황
  - ▶ 지표: 업무 관련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손실 근무일 수, 근무 시간 대비 기록 가능한 사고 발생률 등
  - ▶ 성과 추적: 사전에 정의된 목표 대비 성과를 추적하며, 기업 특유별 지표에 대해서도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

## 2. 사례 연구

### ESRS S1-16 보상 | 보상 정책 및 평가

#### 트렌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보상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시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표준화된 지표와 명확한 방법론을 통해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측정 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보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 기업 소개

유럽에 본사를 둔 상장된 다국적 금융기관으로, 은행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식품 및 농업 금융, 소매 금융, 그리고 기업 금융 서비스입니다.

### 보상 관련 정책

- 전사적 DE&I 전략 통합: 그룹사 전체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약속을 성평등 지표 및 보상 관행과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 정책-실행 프레임워크: DE&I 정책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통해 보여줍니다.
- 정책과 실행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에서 정책 서술과 운영 섹션의 교차 참조를 통해 약속과 이행 간의 일관된 서술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 보상 평가

- 방법론의 명확한 제시: 보상 분석의 검증 및 재현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범위 정의, 계산 방식,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성별 임금 분석의 세분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조정된 데이터와 조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 해소되지 않은 격차에 대한 인정: 여전히 존재하는 차이를 투명하게 인지하고, 완전한 임금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최고 개인 보상 정보 공시: 기업은 최고 수준의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전체 종업원의 중위 임금과 비교하여 명확한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 6-4. ESR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 사례연구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와의 소통 및 참여

#### 트렌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가치사슬 내 인권 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공급업체 조치, ESG 온보딩, 그리고 고충 처리 메커니즘 등을 통해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업 소개

전 세계 여러 대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권 및 노동권 측면에서 고위험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 | 공급망 내 인권 정책 실행

- 이 기업의 인권 정책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 협약, OECD 실사 지침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공급업체 행동 강령, 조달 정책, ESG 온보딩 절차를 통해 실제 운영에 반영됩니다.
- 구조화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예: 국가별 위험 맵핑)을 통해 인권 고려사항이 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지속적인 협력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치사슬 전반의 참여 프로세스

- 기업은 공급업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참여 전략을 적용하며, 위험이 크거나 영향이 큰 관계(예: 태양광 부품 공급업체, 복잡한 지역의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 참여 방식에는 ESG 평가, 추적성 요건, 감사 및 현장 점검이 포함됩니다.
-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는 위험 익스포저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고충 처리 채널 및 모니터링

- 모든 이해관계자(예: 가치사슬 노동자 포함)가 비공개 및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예: "Speak Up"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복에 대한 보호 조치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효과성은 정기적인 보고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추적됩니다.

## 6-5. ESRS S3 영향받는 지역사회<sup>15</sup>

### 핵심 사항

다양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별 사례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스크 리서치(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관찰 내용과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중요한 Topical standards로 공시하기 시작했으며, 흔히 보고서의 한 페이지나 섹션에 통합하여 제시합니다.
- 기업 특유 지표는 최소 공시 요구사항을 넘어 각 기업의 사업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기업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 지역사회 관련 정책과 포용금융, 교육, 지역 경제 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행 관행간의 명확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인권 실사는 민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들은 지역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일반적으로 공시하지만, 이용률 및 효과성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 이러한 공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적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파트너십 또는 핵심 사업과 연계된 영향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나타납니다.

### 영향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 특유 지표의 예시

기업들은 자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기업 특유 지표를 식별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공시되며, 각 기업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 범위(societal footprint)에 맞게 조정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수혜자 수: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개인 수를 나타냅니다.
- 금융 서비스 접근성: 대출, 저축, 보험 등 기본적인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수를 반영합니다.
- 지역사회 투자: 통상 기업 재단이나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된 재정적 지원 금액을 보고하며, 교육, 건강, 환경 보호 등 주제별로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충 처리 메커니즘 이용 현황: 지역사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제기한 빈도를 나타내며, 해결률이나 제기된 문제 유형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 지역사회 영향 평가: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얼마나 자주 평가하는지를 추적하며, 신규 활동 중 평가된 비율이나 취해진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15.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 6-6.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up>16</sup>

### 핵심 사항

다양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별 사례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스크 리서치(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관찰 내용과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공시는 점점 더 구조화되고 확장되는 추세이며, 특히 소비자 접점이 큰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과 “서비스 산업(예: 금융 서비스)”에서 두드러집니다.
- 제품, 서비스, 브랜드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 특유 지표를 통해 보여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화는 소비자 경험 및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에서 핵심 요소로, 플랫폼, 앱, 특정 고객 대상(targeted)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책임 있는 소비와 포용은 식음료, 금융 서비스 등 특정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로, 행동 변화 이니셔티브, 제품 재구성, 접근성 향상 공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예: 고객 불만 접수 채널)”을 자주 강조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지표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 소비자 영향 공시는 통상 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목적 중심의 브랜드 전략, 소비자 신뢰, 웰빙 관련 주제를 강조합니다.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 특유 지표의 예시

기업들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포트폴리오, 이해관계자 중심 전략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도달률 및 만족도: 제품,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 도달했는지와 만족도 지수를 통해 측정됩니다.
- 책임 있는 소비 촉진 노력: 책임 있는 메시지 전달에 사용된 마케팅 예산 비율, 건강한 제품 옵션의 제공 여부 등과 같은 지표를 포함합니다.
- 포용적인 제품 제공: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또는 서비스 포맷의 도입을 추적하며, 여기에는 저알코올, 무유당, 저당 제품이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 디지털 참여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바일 앱, 고객 포털의 사용자 수, 사용률, 개인화 도구를 통한 가치 제공 등을 측정합니다.
- 소비자 지원 및 불만 처리: 소비자 채널을 통해 제기된 사례 수, 해결까지 걸린 시간, 문제 처리에 대한 고객 피드백 등을 포함합니다.
- 브랜드 중심 사회적 이니셔티브: 정신 건강, 사회적 포용, 금융 문해력 등을 다루는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도달률, 참여도, 인지도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됩니다.

16. 수작업 분석 기반 인사이트 (분석 대상 기업: 50개)

## 7-1. 한계 및 유의사항

이번 연구의 일부 결과는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을 활용하여 도출되었으며,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질문은 수작업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enAI는 오류(일명 “환각”)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요약 통계는 개별 기업 분석이 아닌 시장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기업의 관행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ESRS를 적용한 최초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4월 20일(보고서 수집 마감일)까지 공시된 일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마감일 후에 발행된 보고서는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7-2. 분석 방법론

### 개요

이번 분석의 첫 단계는 2025년에 발행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2024년 정보를 반영하며,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 i)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따라 제3자의 “인증(assurance)”을 받은 보고서
- ii) 언어 및 국가에 관계없이 발행된 보고서 (CSRD가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 iii)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발행된 보고서

고유하고 통합적이며 공개적인 고유 저장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 제공업체, 알림 서비스, 고급 검색 기능<sup>17</sup> 및 기타 공개 출처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 sector 및 지역이 다양한 총 656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확보되었으며, 이는 보고서의 섹션 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ross-cutting standards(일반 공시) 및 Topical standards(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 세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질문 후보군이 있었으며, EFRAG 사무국은 목적적합성, 복잡성, 인사이트 및 트렌드 도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최종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본 연구는 GenAI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GenAI 엔진은 사전에 정의된 각 질문에 대해 수집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AQL(허용품질한계) 방법<sup>18</sup>을 사용하여 대표적인 50개 보고서를 선정<sup>19</sup>하고, GenAI의 응답을 수작업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초기에는 13개의 질문이 있었으며, 이 중 11개 질문이 수작업 검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GenAI 분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 질문은 품질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 참조).

GenAI로 분석된 11개 질문의 결과는 보고서 전반에 걸쳐 표로 제시되었으며, EFRAG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2025년 초에 발행된 656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규모로 평가하기 위해 맞춤형 GenAI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2024년 회계연도를 반영합니다. 본 분석의 목적은 CSRD 시행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ESRS를 어떻게 적용하여 공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품질의, 확장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의 견고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질문에 대해 구조화되고 반복 가능한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표성 있는 50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전에 선택된 질문들을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검토하여 모델의 성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참조 답변을 바탕으로, 각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식별하고 해석의 편의를 위해 출력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GenAI 프롬프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동일한 50개 보고서에 적용되어 AI가 생성한 응답과 수작업 참조 답변을 비교하였으며, AQL(허용품질한계) 접근법에 따라 정확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7. Refinitiv Workspace와 같은 고급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검색

18. AQL은 샘플링 기법으로, 허용 가능한 오류(결함)의 최대 수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19. 시장 조사에 포함된 다양한 산업 비중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선정했습니다.

품질 기준은 질문당 오류가 5건 미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품질 검토 과정을 통해, 13개 질문 중 2개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으며, 11개 질문만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11개 질문에 대해 검증된 프롬프트는 전체 656개 보고서에 적용되어, 일관되고 구조화된 AI 응답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질문의 경우, 보고서 작성자들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AI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표준 형식의 인포그래픽이나 표 스타일을 사용해 값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해석하기에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수작업 검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로 체계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ESRS 프레임워크 하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관행을 지속적이고 높은 빈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례 연구를 위한 수작업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유용한 맥락 정보는 전체 연구의 서술을 풍부하게 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별도로 표시되었습니다.

### 7-3. 용어 및 정의

용어	전체명칭	간단한 설명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가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는 EU 지침
PATs	Policies, Actions, and Targets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기업 특유의 ESG 정책, 조치, 목표
IROs	Impacts, Risks, and Opportunities	영향 기반(영향) 및 재무 기반(위험 및 기회) 중요성을 평가하는 요소
DMA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 모두에 대한 분석
VC	Value Chain	조달부터 최종 사용자까지의 모든 사업 활동
CTP	Transition pla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기업의 기후 목표(예: 넷제로)에 부합을 위한 로드맵
AR16	Application Requirement 16	ESRS 내 중요성 평가 구조를 정의하는 지침
ICP	Internal Carbon Pricing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탄소 배출의 금전적 가치
SBTi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기관
IG	Implementation Guidance (e.g., IG3, IG4)	EFRAG이 개발한 ESRS 실무 적용 가이드 문서
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전 세계 산업을 표준화해 분류하는 시스템
NACE	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EU의 공식 경제 활동 분류 체계
AQL	Acceptable Quality Level	AI 결과 품질 테스트 시 허용 가능한 오류 기준

#### CSRD 1.0 기준에 따라 2025년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업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EU) 2022/2464) 제5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EU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제3조 제(4)항에 정의된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s) 중 PIE(Public-Interest Entity)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ii) EU 회계지침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PIE 중 대규모 그룹의 모회사에 해당하며(제3조 제(7)항 기준), 연결 기준으로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핵심 사항

EU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제3조 제(4)항에 따른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s)은 재무제표 기준일에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a)총 자산  
2,500만 유로 이상

(b)순매출  
5,000만 유로 이상

(c)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

- EU 회계지침 제3조 제(7)항에 따른 대규모 그룹은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그룹으로, 연결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회사의 재무제표 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a)총 자산  
2,500만 유로 이상

(b)순매출  
5,000만 유로 이상

(c)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

- EU 회계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PIE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EU) 2022/2464) 제1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a) EU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양도 가능한 증권이 EU 회원국의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경우 (여기서 규제 시장은 2004년 4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채택한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4/39/EC)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제 시장을 의미함);
- (b) 2006년 6월 1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채택한 신용기관의 설립 및 영업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6/48/EC) 제4조 제1항에 정의된 신용기관 (단, 해당 지침 제2조에 언급된 기관은 제외);
- (c) 1991년 12월 19일 이사회가 채택한 보험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 관한 지침(Directive 91/674/EEC)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보험회사;
- (d) 회원국이 public-interest entities로 지정한 기업으로, 예를 들어 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근로자 수로 인해 공중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 기업

## Acknowledgements

본 보고는 EFRAG 기술 리더십의 감독하에 수행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전에 EFRAG 지속가능성 보고 위원회(SRB)와 EFRAG 기술 전문가 그룹(TEG) 구성원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또한, 귀중한 지원을 제공해 준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